INTERNI & Decor

2015 S/S MAISON & OBJET PREVIEW

밀레니엄 서울힐튼 리노베이션

UTAA 건축사사무소

TEOYANG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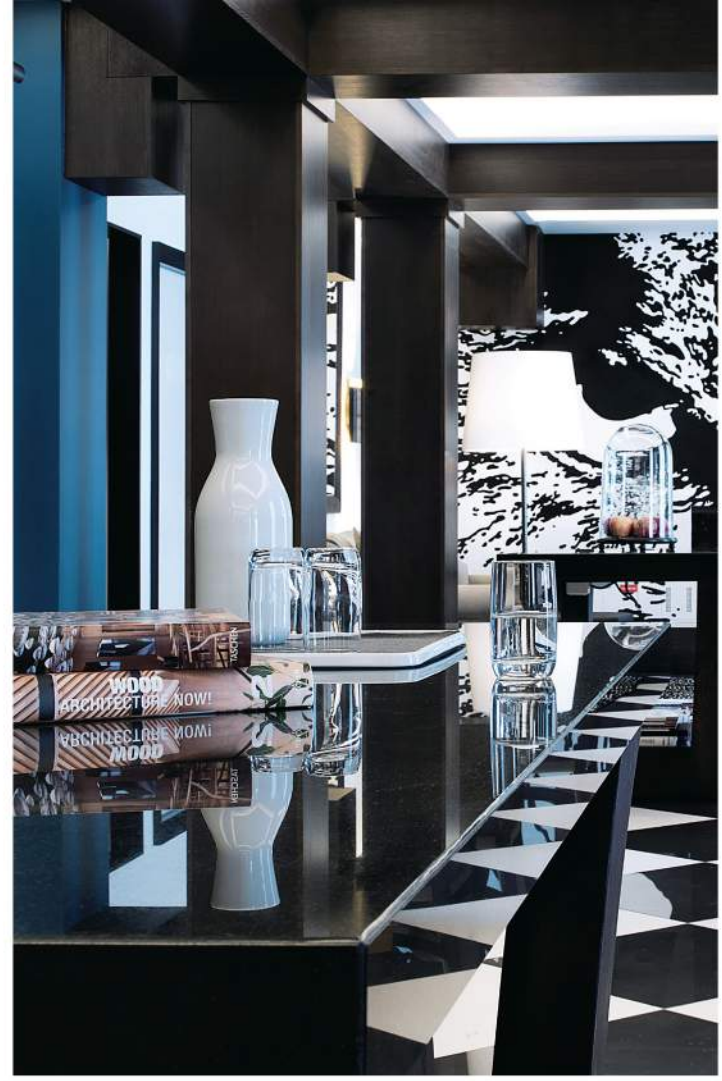
CAFE & RESTAURANT PROJECT

FEBRUARY. 2015

2

9 771228 624002

ISSN 1228-6249



A Timeless Refuse with A Unique French Style

CHESS HOTEL

취재 유승주

다크한 컬러의 소품으로 무게감을 더한 객실 내부.

Compagnie Hôtelière de Bagatelle는 프랑스 파리에 럭셔리 부티크 호텔로 특화된 다양한 호텔 체인을 거느리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4성급 호텔인 CHESS HOTEL이다. Compagnie Hôtelière de Bagatelle는 Patrick Gilles와 Dorothée Boissier에게 디자이너로서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온 디자이너 듀오이지만 이번 CHESS HOTEL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건축, 인테리어, 데커레이션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열정을 담았다.

Architect & Design / Patrick Gilles, Dorothée Boissier
Location / 6 rue du Helder 75009 Paris, France
Area / 1,550㎡
Photography / Christophe Bielsa, Paul Bowyer

파리 12구에 위치한 CHESS HOTEL 입구.

패턴월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옐로 컬러로 온기를 부여했다.

블랙 앤 화이트로 극도의 세련미를 보여주는 복도.

파리에서 가장 작은 12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영화관, 은행 등 좁지만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들이 마련되어 불편함을 느낄새가 없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와 가까워 예술적인 분위기 역시 물씬 풍기며, 언제나 활기 넘치지만 반대로 늘 북적대기도 하다. CHESS HOTEL은 방문객들에게 고요한 분위기 속 진정한 휴식을 전하고자 복잡한 거리를 살짝 벗어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옮겼다.

모던과 내추럴의 조화미를 겸비한 객실.

바닥의 대리석 패턴을 통해 CHESS HOTEL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한쪽 벽면에 나란히 배치된 카우치, 스툴, 소품을 비롯해 먹물을 흩뿌린 것 같은 파격적인 벽지의 패턴까지도 블랙으로 통일했다.

블랙 앤 화이트의 모던하면서도 엘레강스함을 잃지 않은 입구에 호텔 사인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내부로 들어서면, 호텔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로비의 리셉션,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체스보드를 연상시키는 블랙 앤 화이트 대리석 바닥 마감으로 특별한 개성을 드러낸다. 지속되는 모던한 패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 위로 목재 소재의 테이블과 체어, 패브릭으로 업홀스터리된 소파가 하모니를 이룬다. 한쪽 벽면에 나란히 배치된 카우치, 작은 스툴, 장식 소품을 비롯해 먹물을 흩뿌린 것 같은 파격적인 벽지의 패턴까지도 블랙으로 통일했다. 이와 더불어 공간의 기둥과 몰딩 역시 블랙에 가까운 다크한 컬러의 목재를 선택해 보다 강력한 첫인상을 남긴다. 무광과 유광의 소재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코디네이션을 보여준다. 기다란 복도식 공간에서는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던한 공간 속 우드 체어를 선택한 디자이너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기다란 복도식 공간에서는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교한 아름다움 속 진정한 휴식'이라는 콘셉트 아래 호텔 내 마련된 50개의 객실은 서로 다른 컬러와 스타일로 장식되었다.

호텔 내 마련된 객실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정교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장식되었으며, 고요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더해 휴식에 방해요소가 없도록 유도했다. 침실 인테리어는 블랙에 가까운 다크한 컬러의 가구, 등박스, 전화기 같은 소품 등을 활용해 무게감을 더했다. 그 외 침대나 커튼, 벽면과 천장 마감은 대조적인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심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며, 바닥은 오크 소재를 선택해 내추럴하고 자연의 친숙한 분위기를 가미했다. 이는 조용한 공간 속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이너의 섬세한 배려다. 전반적으로는 통일된 분위기이기는 하나 가구나 규모 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두었으며, 침실을 위한 조명, 커튼, 가구, 캐노피 침대, 컵보드와 작은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디자이너 듀오가 직접 제작했다.

 전체적으로 적용된 모노톤 컬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다.

체스보드의 메인컬러는 유지하되 변형된 형태로 장식된 욕실 벽면.

80년대 유행한 게임 팩맨을 연상시키는 벽면 디자인.

침실과 나란히 마련된 욕실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98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게임인 팩맨(Pac-Man)을 연상시키는 블랙 앤 화이트 타일 마감이다. 이는 호텔의 고유의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단순한 체스보드에서 살짝 변형된 형태로 호텔명과 통일된 1차적이고 일관된 디자인을 과감히 탈피했다.

뿐만 아니라 세면기와 받침은 밝은 톤의 대리석 소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살렸다. 욕실 문도 예상과 다름없이 블랙 앤 화이트로 선택했지만 독특한 패턴의 디자인 그래픽으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렸다. 특히 모던한 분위기 속 우드 프레임 거울은 목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공간 속 다양한 소재를 담아내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정갈하고 고급스럽게 완성된 욕실 내부.

선홍빛 컬러를 비롯해 각기 다른 컬러로 꾸며진 복도.

가시성이 좋은 도어 사인.

한편, 층별로 객실 통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층은 선홍빛 컬러로 로맨틱하게, 3층은 블랙 앤 옐로 톤으로 임팩트를 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4층은 그레이 계열로 어둡지만 시크하다. 이 외에도 페르시안 블루, 아이스 블루, 라이트 그레이, 버건디 등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컬러 팔레트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독특한 패턴이 돋보이는 바닥 마감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했다.

그레이와 블랙으로 어둡지만 차분하다.

매서운 독수리의 눈에서 부티크 호텔만이 가질 수 있는 과감한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이로써 프렌치 스타일이 반영된 새로운 스타일의 부티끄 호텔이 완성될 수 있었다. CHESS HOTEL 프로젝트는 정서적이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By Patrick Gilles & Dorothée Boissier

침실을 위한 조명, 커튼, 가구, 캐노피 침대, 컵보드와 작은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디자이너 듀오가 직접 제작했다.